조계종 정기종회 폐회…직선제 등 질의

11월 19일 조계사 안심당서 속개
의원 81명 중 63명 참석해 '성원'
가톨릭 특별법 철회 성명서 채택
은적사특위, 찬성13 · 반대22 부결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11월 19일 서울 조계사 안심당에서 제236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집행부를 향한 강도 높은 종책질의를 쏟아 냈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중앙종무기관의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원론적 답변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총무원장 선거 직선체 추진 여론', '승적관련특별조치법' 등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질의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신설' 종헌 개정안 부결 이후 종회 불참을 선언했던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모두 참석해 재적의원 81명 중 63명으로 성원됐다.

본격적인 종책질의는 총무원 총무부와 기획실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다른 질의는 문건으로 대체됐다.


종회의원 스님들이 '은적사비리진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총무원장 직선제 여론 수렴

대진 스님은 내년 치러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직선제를 요구하는 종도들의 의견 수렴 방안을 총무부에 물었다.

이에 총무부장 성웅 스님은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요구는 인지하고 있다. 다만 여론 수렴과 종헌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어려운 점이 있다"며 "선거제도 개선과 관한 논의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해 종단적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답했다.

승적관련특별조치법 문제 제기

종단이 2013년 제정한 승적관련특별조치법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질의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종단 내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들이 출몰하고 있어 이런 소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종단의 적극적인 문제 검토와 사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총무부장 성웅 스님은 "승적관련특별조치법은 2013년 제19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숙의와 합의를 거쳐 제정된 입법적 결단이었다"며 "승가의 화합을 저해하려는 시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종단의 근간을 지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다수 의원 스님들은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와대 불자회장 논란

최근 가톨릭 신자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불자회장으로 내정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현재 청와대 불자회장 임명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강 비서실장은 불교계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 다음 주까지 의견을 조정해서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반대 성명 채택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를 받고, 종정감사특별위원회 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된 4개 사찰에 대한 종단 특별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또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의가 제출한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법안 철회를 위한 강력 대응을 결정했다.

'은적사비리진상특별위원회' 구성은 장시간 논의 끝에 거수 표결을 진행, 의원 56명 중 찬성 13표, 반대 22표로 부결됐다.

한편 중앙종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11월 19일)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정기회를 폐회했다.

관행 깨고 치열해진 중앙종회…"역할·직무 다했다"

비구니 호계위원 종헌개정 부결
"신뢰 · 도덕성 문제…반복 안 돼"
정법회 · 선우회 적극 의견 개진

조계종 중앙종회 제236회 정기회는 15일 회기 중 단 3일만 개회해 입법·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지만,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치열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며 종회의 변화된 흐름을 드러냈다. 정법회와 선우회 등 새롭게 출범한 종책모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종회 내 긴장감을 한층 높였다. 다만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안이 단 한 표 차로 부결되면서 책임 있는 표결과 신뢰 문제를 둘러싼 아쉬움도 남겼다.

정기회는 초반부터 변수가 이어졌다. 최대 종책모임 불교광장이 당론으로 정했던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 종헌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다,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둘러싼 격론도 이어졌다.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11월 7일과 10일에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회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이번 정기회에 대해 "종회가 두 차례 유회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종회의원들이 끝까지 역할과 직무를 다해줬다"고 평가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회기 마지막 날(11월 19일)로 집중되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정기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 종헌 개정안은 이번 정기회에서도 5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53표, 반대 22표로 가결 정족수에 단 한 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에 항의해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본회의장을 이석하며 종회 불참을 선언했으나, 정기회 마지막 날 회의에 참석해 "종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경 스님은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신뢰 문제를 지적했다. 스님은 "법안에 동의해 놓고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일"이라며 "이런 신뢰와 도덕성의 문제는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비구니 종회의원 정운 스님은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는 과제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를 위해 내년 3월 임시회에서는 법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정법회와 선우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종회 내 논의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정법회 소속 대진 스님은 "관행에 머무르면 조직이 발전하기 어렵다"며 "정법회는 중앙종회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종도들의 다양성이 고르게 반영되는 종회를 만들도록 남은 임기 동안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에 원산 도명 대종사

11월 19일, 제80차 원로회의서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에 원산 도명 대종사〈사진〉가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스님)는 11월 19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제80차 회의를 열고 원산 도명 대종사를 신임 원로의원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22명의 원로의원 가운데 15명의 스님이 참석했다.

원로의장 자광 스님은 개회사에서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종단 소임자 스님들이 종단을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이끌어 주고 있어 원로의원 스님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회의는 원로의원 선출 단일 안건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37대 집행부를 갈무리하는 시점에 그동안 추진해 온 종단 발전의 주요 사업들을 원만히 회향하고, 그 결실이 사부대중 모두에게 회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종단이 바른 도량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불법홍포와 사회적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길로 나아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원산 스님은 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 사미계를, 1968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주지와 조계종 교육원장, 제8교구본사 직지사·제15교구본사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를 역임했다. 2021년 10월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여수령 기자

본사주지협, 청사 복구 등 현안 논의

11월 18일, 신흥사서 85차 회의
내년 1월 동화사서 회장단 선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등운 스님, 고운사 주지)가 11월 18일 제3교구본사 신흥사 설법전에서 제85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 청사 복구 등 현안을 논의했다.〈사진〉

회의에는 회장 등운 스님을 비롯한 전체 26명 중 23명의 본사 주지 스님과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이병선 속초시장, 김시성 제3교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 보고에 따르면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은 9월까지 피해시설 철거와 설계, 시공사 선정을 마쳤고 현재 12월 재입주를 목표로 인테리어 시공 중이다. 국제회의장 복구는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1층 로비는 기념관의 상징적인 공간이자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곳으로 '전통과 현대적 이미지의 조화'를 위해 기존 서산마애여래삼존불을 수덕사로 이운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LED 파사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불교지도자 국민화합기원 송년만찬'은 12월 12일 오후 6시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호텔 1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원로의장 자광 스님, 종회 의장단, 교구본사 주지 스님, 전국비구니회장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단 및 임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전통사찰 보존지 지목 일원화 입법 추진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조계종·국립공원 캐릭터(굿즈) 상품 판매 △산불피해 예방 및 사찰림 복구 △전통사찰 경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등도 논의했다.

한편 회장 등운 스님의 임기 만료로 인한 차기 회장단 선출은 내년 1월 중 제9교구본사 동화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한·중 달마연구회 창립 기념
제1회 한국 달마축제
달마 선행승 선발 · 달마그리기 · 수계법회

선종(禪宗)의 초조(初祖) 달마(達磨)대사의 선(禪) 수행의 심법(心法)을 연구 보존하기 위한 중국 달마연구회와 공동으로 연구 할 목적으로 한국 달마연구회 창립기념 제1회 달마도 작품 전시회 및 달마 선행승(禪行僧) 선발대회.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금강계단에서 품계와 보살수계식도 봉행!

참가대상은 전국 사부대중

- 일시 : **불기 2569(2025)년 11월 30일(일)** 오전 10시~오후 4시
- 장소 : **원주 미륵산 용화사**(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지차골길 27)
  - 1부 : 달마 선행승 선발대회 - 2부 : 품계와 보살수계식
  - ※ 작품 전시 및 달마 그리기 대회는 행사 당일 종료시 까지
- 참가요령 ① 달마작품 공모 - 입상 1점, 좌상 1점(작가는 당일 작품 판매가능)
  ② 달마상 선발대회 - 참가자는 선풍 달마의 풍모와 수행 행상(行像)
  ③ 보살수계식 - 직접 또는 참가 사찰별로 단체접수
- 참가신청마감 및 내용 : 참가응모 마감 11월 25일까지
  - 작품응모 : 참가비 없음 - 수계비용 : 5만원(만의 제공)
- 달마 연구회 회원 모집 : (국내외 달마 연구활동, 소림사 달마 연구회와 교류)



주 최 :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본찰, 대한불교 달마연구회**
주 관 : **중국숭산 소림사 한국본찰 미륵산 용화사(원주), 세계불교 승왕청, (사)한국불교종단 총 연합진흥회 cbc108.tv연합불교방송, 칠불회, (사)세계평화연합법인회, (사)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참여단체 : **(사)한국민속예술연구원,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월간禪으로가는길, 각 종단외 12단체**
후 원 : **㈜드림월드개발, ㈜동해식품, ㈜블로만**
문의전화 : **010-4813-6800 혜광스님**

소림선종 종도 원주 용화사(본찰) 상주 무량사 돈오, 포항 관은사 혜담, 정읍 은곡사 은곡, 청도 도선사 도선, 여주 성덕사 법성, 청주 사무사 월암, 창녕 불보사 법붕, 대구 금천사 소운, 담양 승지암 용현, 세종 봉명사 법지, 장수 도광암 혜원, 창원 불해사 제봉, 울산 희망사 자운, 원주 보림사 혜일, 울산 홍련암 월봉, 음성 무애사 경천, 태백 용연사 덕원, 포항 등대사 해승, 경주 천룡사 지성, 포항 관음사 혜암, 포항 연화사 일붕, 영천 육화사 무통, 칠곡 광명사 성덕, 경주 석가사 혜일, 고령 무유사 금봉, 금산 도명사 해일, 남해 호암사 법장, 밀양 혜왕사 도암, 정선 청룡사 청호, 영월 법흥사 법정, 울산 약명암 법일, 정읍 미타사 경오, 포항 우현사 자인, 창원 백운사 일초, 포항 화엄사 해정, 여수 용천사 선덕, 포항 용천사 원혜, 포항 용국사 원혜, 담양 동자암 보리, 속초 화봉암 원행, 양SS양 천궁암 태경, 부산 덕원사 종묘, 대구 홍익사 청명, 고양 인수암 성해, 서울 강북 인수암 용담, 부산 반야정사 지우, 서울 중랑 법륜사 관연, 대구 은덕선원 덕윤, 청주 용화정사 현공, 서울 은평 열린선원 현수

불교계 최고 통일 禮敬儀式集
의식법요집



〈불교의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수행〉

『통용불공법요집』『다비법요집』『천도법요집』은 불교의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편찬한 불교의식집이다.

그동안 선지식들이 남긴 뛰어난 불교의식집이 많았으나, 시대 변화 속에서 일부가 단순화되거나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도 있었다.

의식법요집은 사찰의 현실적 어려움과 신도들의 간절한 신심을 바탕으로, 여러 큰스님들이 전해온 기도법과 전통 의식을 재정리해 신도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신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책이다.

다비법요집 (1,445쪽) 150,000원 | 천도법요집(853쪽) 100,000원 | 통용불공법요집 (885쪽) 100,000원

- 불공신앙, 영혼천도, 사자신앙, 소재신앙, 세시풍습을 종합한 의식법요집
- 출재가를 아우르는 예불, 독경, 기도, 공양 등 의식을 집대성한 의례의식집
-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정례화된 한국 불교의 뿌리를 공고히 한 편찬서

보급처 | 사단법인 대한불교교종 TEL : 031-291-8414 H·P : 010-8653-3216